

주요개념 : 간호대학생, 경제의식

간호대학생의 경제의식에 관한 연구

홍 윤 미*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우리나라는 IMF때보다 더 심각한 경제상황을 맞고 있다고 한다. IMF관리체제 이후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금리인하와 일본의 엔화강세, 국제 원자재의 가격하락 등의 국제 경제여건이 호전되고 신홍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조금씩 나아지는 환경에 있었다. 내부적으로는 국내 시장의 활성화가 경기를 이끌어 가는 중요 요인이었는데 저금리와 금융기관의 공격적 신용확대 및 정부의 신용카드 이용 촉진책 등이 초래한 부동산의 투자 과열현상과 무분별한 신용카드 사용으로 가정경제의 부실화를 부추기면서 경제활동 인구 100명당 1997년 6.6명에서 2003년 7월 14.4명으로 2배 이상의 신용불량자를 만들어 냈으며, 신용불량자가 350만에 육박하고 있다(Maeil Business Newspaper, September 27, 2003). 이러한 경제문제와 관련하여 범죄와 자살 등의 사회적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개인뿐 아니라 기업이나 기타 경제활동의 주체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보도가 주를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의 신용카드와 관련된 경제문제는 성인의 개인파산 뿐만이 아니라 젊은 청소년이나 대학생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등 젊은 세대를 제대로 경제활동을 시작도 하기 전에 범죄자로 만드는 환경을 만들어 놓았다.

더구나 대학생은 미래경제의 주체이고 대학생의 경제의식은 앞으로의 경제발전에 무엇보다 중요한 한 요소라 할 수 있다(Lee, Bae & Lee, 1996).

경제에 대한 건강하고 바른 의식은 건강한 경제환경 조성과 꾸준한 교육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최근에 이 문제의 심각성을 사회가 인식하여 일 경제신문에서는 'FQ를 높이자'는 칼럼을 통해 금융에 대한 지식을 어린 자녀에게 교육해야 하는 필요

성을 확산시켜가고 있다. 또한 청소년과 대학생에게 경제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게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공유되면서 금융 지식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경제환경내에서의 의료환경도 마찬가지이다.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서 병원이 생존하고 발전하면서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여러 노력이 활발히 전개되어 왔었다. 특히 기업병원의 출범으로 의료에서도 효율적 경영에 대한 인식이 보편화되었다. 병원 인력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간호사의 경제의식은 간호행위에 영향을 미치므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병원경영은 무엇보다도 공공성이 강조된다. 그러므로 간호사의 경제의식에 대한 연구에서 윤리적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

간호학생은 대부분이 미래 간호사로서 경제활동을 할 주체이며 이들의 경제의식은 자신의 경제활동 뿐 아니라 그들이 일할 보건과 관련된 일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은 덜 경제적이며 사회적이라고 알려져 왔다. 그리고 간호인력은 대부분이 여성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최근 보도에 의하면 여자 신용불량자의 비율이 남성에 비해 높다(MBN, September 27, 2003). 그러므로 간호학생의 경제윤리에 초점을 둔 경제의식을 파악하여 바른 경제의식을 갖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지식을 꾸준히 제공한다면 개인의 경제윤리의식이 바르게 정립되어 개인의 경제환경이 건전해질 뿐만 아니라 건강한 경제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일터와 국가 경제에도 보탬이 될 것이다.

과거 경제의식에 대한 선행연구가 있으나 간호학생의 경제의식에 대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고, 간호사들의 경제학적 지식은 낮거나 전무하며(Wieseke & Bantz, 1992; Caroselli, 1996; Lee, 2003), 이것은 학부나 보수교육과정에서의 경제학 관련 교육의 기회가 부족하며 간호사 자신의 경제의식의 부족 등이 이유로 들 수 있다(Wieseke & Bantz, 1992)고 하였으므로 궁극적으로 국가와 개인의 건강한 경제와 병원의 효율적 경영을

*관동대학교 간호학과

돕기 위하여 경제지식을 교육하고 건전한 경제의식을 갖도록 하는데 기초자료를 얻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2. 연구의 목적

- 간호학생들의 경제행태(경제생활, 경제활동-아르바이트, 직업관, 경제관)를 알아본다.
- 간호학생들의 경제의식의 정도를 알아본다.
- 간호학생들의 경제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본다.

3. 용어 정의

경제의식이란 개인이나 집단이 경제에 관하여 보유하고 있는 또는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태도, 의견 및 민감도의 일부 또는 전부이다(The American Heritage Dictionary of the English Language, 1981).

본 연구에서의 경제의식은 일반적인 경제의식보다는 경제덕목 내지는 경제윤리에 초점을 둔 경제의식을 의미하며, Kim(1995)의 연구를 토대로 Lee et al.(1996)가 근면, 직업, 절약, 소비, 협동에 관한 영역으로 구성된 도구를 근간으로 수정 보완하여 연구자가 작성한 것으로 각 영역마다 3개 문항씩 총 15개 문항으로 구성된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경제의식이 높다.

II. 문헌고찰

최근 정보화의 진전과 정보화에 의한 조직변화 등에 의해서 경제조직, 경제관계, 경제양상 및 기술 등에서 근본적인 변화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특징적인 사실은 경제주체들의 정신적 요소인 윤리, 의식 및 문화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주체의 행동에 있어서는 물질적 요소가 아닌 정신적 요소(윤리·문화적 요소)가 매우 중요하다(Lee et al., 1996). 이는 정신적 요소로서의 경제의식 내지 경제윤리가 실물경제의 효율성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병원경영에서도 경영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그 구성원들의 가치관과 의식구조가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제발전이 경제주체들의 경제의식을 어떻게 변화시켰으며, 한편 앞으로의 경제발전에 경제주체들의 경제의식이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하는 점을 고찰해 보는 것은 상당히 흥미롭고도 중요한 문제이다. 더구나 미래의 경제주체라 할 수 있는 대학생들의 경제의식은 앞으로의 경제발전에 결정적 요

소라고 할 수 있다(Lee et al., 1996). 그러므로 경제의식이 어떤 요인들에 의해 형성되는지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개인의 경제윤리의식은 인성형성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인성형성을 결정하는 요인은 크게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으로 대별되나 현대 심리학에서는 후자를 보다 중시하고 있다. 유전적 요인은 선천적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성격과 기질, 성, 의도, 심리적 안정성 등이며, 환경적 요인은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가정환경, 학교환경, 사회환경, 신앙환경 등이다. 따라서 경제윤리의식도 수많은 유전적 요인 및 환경적 요인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Kim, 1995). 경제의식과 관계가 깊은 유전적, 환경적 요인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먼저, 성에 있어서 심리적으로 남성은 경쟁적인데 반해 여성은 모성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성별에 따른 도덕성 발달에 관한 Lee(1988)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중고생의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도덕성 발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결과는 상반될 수도 있다.

다음으로 인성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많은 교육과 경험으로 윤리의식에 차이가 발생한다. 특히 교육은 가치관과 일정한 행동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를 창출하게 함으로 학교윤리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교육기간이 길수록 행위규범이 더욱 내면화되어 고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보다 바람직한 윤리의식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윤리는 믿음을 기초로 세워진다. 믿음이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사상이기는 하나 증명이 없어도 스스로 명백하다고 단정되는 것이다. 특히 종교적 신앙을 기초로 한 도덕적 법칙은 인간활동에 대해 신령한 권위를 가지고 절대적 역제를 하거나 적극적 행동을 추구하게 한다. 종교인으로 깨울은 자기행위가 깨울의 규정에 위반하기 쉽고 자기의 기호경향이 그 규정과 상반됨이 많음을 자각하게 하여 개선하고 성화의 길로 나가게 한다. 즉 깨울은 종교인에 있어서 절대적인 법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종교간에 깨울의 격차 및 교육과 훈련의 정도에 따라 경제윤리의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전통적으로 한국의 정신 세계를 지배했던 사상은 무속신앙과 불교 및 유교로 인본주의적 신앙과 윤리의 바탕 위에 서구의 자본주의 제도가 접목되었다(Kim, 1996). 그래서 한국인들은 신본주의적인 기독교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는 서구 자본주의 정신을 내면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즉 서구의 개인주의, 이기심, 자유와 평등사상 등은 자율성이 부족한 우리사회에서 잘못 이해되어 부작용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즉 금욕적 합리주의 정신은 내세의 구원과 현세의 경제생활문제가 직결됨으로써 탐욕을 절제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유발하여 이기심과 경쟁을

바탕으로 하는 자본주의가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경제의식 면에서 금욕적 합리주의 정신과 우리 전통사상의 주요 차이점은 금욕적 합리주의 정신이 신본주의이고 내세 중심적 사상을 가지며 내면적 가치(사랑, 화평, 감사)를 중시하며 직업에 대한 천직의식을 가지고 청지기 사상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전통사상은 인본주의, 현세 중심적 사상(육신 중심적 사상), 외면적 가치(금력, 권력, 쾌락)를 중시하고 직업은 생계 및 출세의 수단이고 자기소유사상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앞서 지적한 것처럼 서구의 금욕적 합리주의 정신과 우리의 전통사상 간에는 괴리가 크다.

주거지역의 차이는 생활경험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윤리의식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도시지역에는 직장이 밀집되어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살고 있으므로 인간관계가 기계적이고 인간에 대한 귀중함이 상대적으로 결여되게 된다. 그래서 지역 사회에 대한 충성심이나 연대감 등이 결여될 수 있으나 근면이나 직업의식은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다. 따라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학생들 중 어느 집단이 경제윤리의식이 높을 지는 불분명하다(Kim, 1995).

Lee et al.(1996)은 경제윤리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성별, 성장배경지역, 종교, 생활수준, 보호자의 직업이라 하였다.

Park(1992)은 경제의식의 결정요인은 객관적 결정요인과 주관적 결정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객관적 결정요인은 교육, 연령, 성 등의 개인적 특성과 소득, 주거지, 주거형태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여건이다. 개인적 특성으로서 나이는 사회에 전반적으로 존재하는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보수적인 성향을 보인다. 교육정도와 성은 경제의식과의 관계가 불분명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하였다. 교육정도는 높은 교육수준은 좋은 직업과 아울러 이에 대한 기득권 의식을 통해 보수적 경제의식의 가능성을 제시하지만 동시에 정부에 대한 비판의식을 통해 진보적인 경제의식의 가능성도 제시하기 때문이며, 성은 남녀간 차이가 분명하지 않다고 하였다.

사회·경제적 여건에서 주거형태가 경제의식에 관계가 있는 것으로 예측되는 이유는 주택가격이 중산층의 기득권 의식의 대상을 주택으로 향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주관적 결정요인의 분야에서는 본인 자신이 속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중산층내에서의 계층이 결정요인이다. 즉, 본인이 자신의 소득과 직업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자신이 속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세 가지 계층 즉 중상류, 중중류, 중하류층 등이 예가 되는데 이 경우에 있어 주관적 인식에 의한 귀속계층과 경제의식 간에는 상관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유는 한국의 경우에 있어 객관적인 중간

의 인구분포와 주관적 중류의식 소유자의 분포가 일치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관적 결정요인과 경제의식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은 객관적 요인과 경제의식에 대한 설명능력을 간접적으로 검증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으나 이를 검증한 Park(1992)의 연구에서는 연령과 거주형태만이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나타났다.

오늘날 우리경제는 아직도 다방면에서 미성숙 단계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하려는 의지'가 소멸되고 있고 자유와 방종을 구별하지 못하는 데 따른 질서외식의 부재, 국민적 윤리의식의 결여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경제하려는 의지가 약화되고 있다는 주장은 80년대 후반이래 나타나고 있는 몇 가지 '한국병 현상'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한국병 현상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근로정신의 해이다. 절대적 빈곤문제가 해결되고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여가를 선호하며, 3D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87년이래 급격한 임금상승은 이러한 현상을 가속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둘째는 기업이 정신의 쇠퇴이다. 자본주의 경제발전에는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이 정신이 필수적이다. 성공에 만족한 기업이 모험심을 버리고 안일하게 돈을 벌려는 이른바 재테크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최근의 격심한 노사분규로 제조업은 기피되고 유흥·향락 산업이나 건설업 등 소비성 내수산업이 번창하고 있다.

셋째는 노사긴장의 악화이다. 자기 몫을 찾겠다는 노동자의 욕구증대로 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인상을 관철하였으나 국내 물가 상승, 국제수지 적자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제품 불량률이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넷째는 지축의욕의 저하이다. 국내외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일부 사람들의 졸부 근성과 과소비 행태가 전 계층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Kim, 1995).

Kim(1998)은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경제의식상 문제점을 앞서 언급한 금욕적 합리주의 정신면에 근거하여 경제의식의 구성영역을 다음의 다섯 영역으로 설정하고 영역별로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근면의식 : 열심히 일하는 동기가 부귀를 얻는데 있으므로 성공의 단계에 이르면 근면의식이 약화되며, 이를 자랑하고 과시하려는 성향으로 인해 유한계급이 선망되는 사회분위가 강하다.

절약의식 : 축적된 재산은 사회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기보다 주로 자신의 영광과 쾌락을 위해 사용하고 나머지는 후손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데 사용한다.

직업의식 : 직업의 귀천을 따지는 경향이 강하고 출세를 위

한 교육열이 상당히 높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직업에 대한 전직의식보다는 직업을 생계유지나 출세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어 직업을 통한 봉사나 서비스 정신이 현저히 약하다.

협동의식: 인본주의적 사고의 바탕 위에 서구의 이기심, 개인주의, 자유·평등사상 등이 잘못 이해되어 사회 전 분야에서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전체이익보다 개인이익을 탐욕적으로 추구하고, 사적인 정과 욕심이 우선됨에 따라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있다.

창조의식: 자체 기술개발 노력보다는 선진기술을 도입하는데 익숙해 있으며 사회분위기 또한 기술계보다 인문계를 선호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기업인의 경영합리화, 노동자의 기술습득, 정부의 효율성 제고노력 등 경제 하려는 의지가 선진국에 비해 뒤지고 있다. 그러나 Lee et al.(1996)은 창조의식은 구성성의 문제나 개념의 모호성으로 이를 소비의식으로 대체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Kim(1995)의 문제점을 개선한 Lee et al.(1996)의 영역과 개념을 연구의 틀로 사용하였다.

경제학이란 우리가 가진 제한된 자원을 여러 상충하는 욕구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자원의 희소성과 이에 따라 불가피한 선택, 즉 효율적인 자원배분의 문제는 경제학의 출발점인 동시에 모든 경제분석의 본질적 주제가 된다. 그러나 선택행위에는 얻는 것과 함께 잃는 것이 반드시 수반되며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 편익과 비용을 모두 고려하여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Feldstein, 1999; Lee, 2003에 인용됨). 그러나 의료부문에서는 이러한 과정에서 효율의 저변에 지켜져야 할 도리들이 더욱 존중되어야 한다. 간호사는 의료소비자인 환자와 가장 직접적이면서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주요 인력이고, 환자들이 지각하는 전반적인 의료서비스 만족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투입요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독특한 위치에 있다(유동근, 1996). 그러므로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은 누구나 간호서비스에 관련된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모색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이태화, 2003). 실무에서 간호사들이 비용-효과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간호사들은 먼저 경제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비용 의식적인 환경에서 근무해야 하며, 실제로도 간호사들의 경제학적 인식의 노력들은 실제로 환자의 재원기간감소와 병원비용절감과 같은 긍정적 결과를 가져왔다(Hicks, Stallmeyer & Coleman, 1992; Sandella, 1990). 간호사들의 경제학적 인식이나, 지식 실태에 관한 연구가 거의 없으며, 그나마 몇몇 연구들도 거의 외국에서 수행된 연구들이어서 우리나라의 현실

로 유추해 보기에는 많은 제한점이 있다. 간호사는 간호서비스에 대해 경제학적인 인목과 기술을 가짐으로써 간호서비스의 질은 더 향상시키면서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이를 실무에 적용시킬 수 있다. 이런 행동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전략은 간호사들 스스로가 간호서비스를 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형성하도록 노력하며(이태화, 2003), 이를 도와야 한다.

경제학적 인식과 지식의 바탕에 있어야 할 올바르게 건강한 경제의식은 일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조기 외국어 교육보다 조기 경제교육이 지식 장래에 더 도움이 된다는 부모 자각이 선행되어야 하며, 초·중·고등 학교의 교과과정에 뿐만 아니라 대학에서 경제에 대한 강좌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MBN, November 20, 2003). 그러므로 업무수행과정에서 윤리가 더욱 강조되는 간호직은 경제윤리에 초점을 둔 경제의식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경제의식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총 11개교로 서울특별시와 각도(경기, 강원, 충청남·북, 전라남·북, 경상남·북, 제주)에서 편의 표출한 일개 간호학과 1, 4학년 전수이며 강원도는 영서와 영동 각각에서 일개교씩 총 2개교를 대상으로 하였고, 일학년 전부가 함께 수업하는 시간이 없는 일개교는 일학년 설문이 불가능하여 4학년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은 총 995명이었으나 응답자는 892명으로 회수율은 89.6% 이었다. 설문의 완성도가 현저히 낮은 5부와 남학생 13명을 제외하여 최종 연구대상자는 874명이었다.

3. 연구도구

연구자가 Kim(1995)와 Lee et al.(1996)의 논문을 참고로 작성한 구조화된 질문지로서 간호학과 교수, 경제학자, 경영학자, 전문경영자 각 1인의 자문을 통해 타당도 검사를 실시한 후,

간호학생 10명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질문지를 수정·보완하였다. 도구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경제윤리의식으로 구성하였으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인구사회학적 특성 : 나이, 학년, 성별, 종교
- 환경특성 : 주성장지, 주거형태, 동거가족수, 부모동거 여부, 부모직업
- 경제생활 : 월소득, 월용돈, 월생활비, 금전출납기록, 본인 계좌 여부, 저축이유와 시기, 카드보유 여부·수·종류·명의, 연체 경험과 횟수, 현금서비스 사용경험, 경제지식 습득방법, 경제지식의 현실생활 밀접도
- 경제활동 : 아르바이트 경험과 이유, 원하는 시간·급여수준·장소 및 시간
- 직업 및 경제관 : 직장선택 기준, 초봉수준, 경제성장의 기여자, 우리경제의 취약점과 경제가 취약한 이유, 경제가 잘된다는 의미

2) 경제의식

경제윤리에 강조점을 둔 Kim(1995)의 근면, 절약, 협동, 소비, 창조지식의 5영역으로 구성된 경제의식의 틀을 근거로 Lee et al.(1996)이 개념이 구체적이지 못하여 모호하다고 판단한 창조지식을 소비의식으로 수정한 경제의식 도구를 근간으로 연구자가 작성한 도구이다. 각 영역마다 3문항,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경제윤리의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94이다.

경제의식의 영역체계와 개념은 다음과 같다(Lee et al., 1996).

- a. 근면의식-목적으로서의 근면성, 남을 위한 근면성
- b. 직업의식-직업선택의 기준, 직업의 귀천성, 직업을 갖는 이유
- c. 절약의식-남을 위한 절약정신, 목적으로서의 절약성
- d. 소비의식-올바른 소비방법, 충동구매 여부, 소비의 합리성

- e. 협동의식-집단의 우선화, 이기적 행동의 자제, 타인에 대한 배려

4. 자료수집 방법

자료 수집은 2003년 6월 5일부터 2003년 6월 20일까지 16일 동안이었으며 각 학교 전임교수에게 전화와 공문을 보내어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한 후 협조를 요청하였고 이를 수락한 학교들에서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이에 동의한 학생들에게 실시되었으며 작성된 설문지는 다시 우편으로 받았다.

5.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AS V8.1통계 package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경제의식과의 관계는 변수의 특성에 따라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2-sample t-test, ANOVA로 분석하였다.

- 3) 대상자의 경제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IV.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환경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21.8±1.91세이었고 19세부터 29세까지 분포되어 있었다. 종교는 종교 없음 38%, 기독교 32%, 천주교 15%, 불교 12%의 순이었다.

주성장지는 중소도시가 55%로 과반수이상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광역시 25%, 특별시 15%, 농어촌 6%의 순이었다.

<Table 1> Demographic and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874)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s	frequency	percentage	average
age	19~29			21.84
grade	1	398	45.54	
	4	476	54.46	
sex	female	874	100.00	

〈Table 1〉 Demographic and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continued)

(N=874)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s	frequency	percentage	average
religion	Buddhist	108	12.37	
	Christian	280	32.07	
	Catholic	135	15.46	
	others	17	1.95	
	no religion	333	38.14	
	no response	1		
major place of growth	Seoul	132	15.12	
	metropolitan city	215	24.63	
	small or mid-sized city	478	54.75	
	rural province	48	5.50	
	no-response	1		
residential forms	unshared house	190	21.81	
	apartment houses	329	37.77	
	tenement house/town house/multifamily house	82	9.41	
	living alone/lodging	171	19.63	
	others	99	11.37	
	no response	3		
living with parents	yes	513	59.03	
	no	356	40.97	
	no response	5		
father's occupation	self-employed	283	34.43	
	office workers/public officers	411	50.00	
	farmer/lumber man/fisher/miner	84	10.22	
	homemaker/unemployed	44	5.35	
	no response	52		
mother's occupation	employed	309	37.41	
	unemployed	517	62.59	
	no response	48		

주거형태는 아파트 38%, 단독 22%, 자취/하숙 20%, 기숙사(기타) 11%순 이었다.

동거 가족 수는 4명이 32%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혼자 24%, 5명 20%순 이며 최고 11명이 함께 살고 있었다. 부모동거는 동거하는 경우가 59%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부의 직업은 자영업이 34%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회사원 28%, 농/임/수산/광업 10%, 공무원 10% 순 이었다. 모의 직업은 주부가 63%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다음은 자영업이 16%, 회사원 8% 등이다.

가구당 월소득은 200-300만원 미만이 37%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100-200만원 미만으로 29%, 300-400만원 미만 15%, 400-500만원 미만과 50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이 모두 6%이었다. 대상자의 42%가 월용돈이 11-2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월생활비도 11-20만원이 가장 많았고 41%를 차지하였다. 금전관리기록은 가끔 기록하는 경우가 44%로 가장 많았고, 전혀 기록하지 않는 경우도 38%로나 되었다. 가장 지출이 높은 항목은 식비로 58%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의류구입 25%이다. 91%의 학생이 본인명의로 계좌를 가지고 있었다. 과

반수가 용돈을 아껴 저축하였고 55%, 이는 사용 전에 먼저 저축하는 경우가 39%, 쓰고 남아서 저축하는 경우가 41%, 절약하여 저축하는 경우 20% 순 이다. 68%의 학생이 카드를 보유하고 있었다. 보유카드 수는 응답자의 49%가 1장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2장이 36%, 3장 12%이고 최고 6장까지 소유하고 있었다. 현금카드 58%, 직불카드 38%, 신용카드 23%로 보유하고 있었다. 카드의 명의를 94%가 본인명의로 되어 있었다. 연체경험은 10%가 있다고 답하였으며 연체횟수는 1-10회로 나타났으며 1회가 37%로 가장 많았으며, 2회 32%, 3회 13% 등의 순 이었다. 응답자의 30%가 현금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

었다. 현금서비스의 사용 횟수는 1-100회로 매우 다양하였는데 자주, 많음 등으로 표시한 응답자도 다수이다.

경제의식의 습득은 주로 가정에서 이루어진다고 응답했으며 44%, 인터넷 42%, 신문 38%, 학교교육 20%순 이었다. 경제지식의 현실생활의 밀접도는 약간 그렇다가 49%로 받을 차지하였고, 약간 그렇지 않다가 36%, 매우 그렇지 않다가 12%를 차지하였다. <Table 2>

대부분의 학생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었으며 82%,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는 대부분이 용돈이 필요해서가 77%라 응답했으며, 생활비 10%, 기타 9%, 학비 5%, 유희비 4%순 이었다.

<Table 2> Economic status of the subjects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s	frequency	percentage	average	
monthly allowance	100,000 won or less	158	18.85		
	110,000-200,000 won	353	42.12		
	210,000-300,000 won	220	26.25		
	310,000-400,000 won	79	9.43		
	410,000 won or more	28	3.34		
	no response	36			
cash book recording	always keeping	65	7.73		
	frequently keeping	88	10.46		
	often keeping	367	43.64		
	not keeping at all	321	38.17		
	no response	33			
maximum expense item	clothes	212	24.65		
	cultural events viewing	43	5.00		
	books	39	4.53	multiple selection	
	leisure activities	70	8.14		
	foods	497	57.79		
	others	41	4.77		
possession of accounts under one's own name	yes	778	90.57		
	no	81	9.43		
	no response	15			
resources for saving	parts of allowance	458	55.18	multiple selection	
	getting from parents	197	23.76		
	part-time job	246	29.60		
	getting from relatives	97	11.69		
saving patterns	deposit first and then consume the rest	319	38.90		
	save and deposit	166	20.24		
	consume first and deposit the rest	335	40.85		
	no response	54			

〈Table 2〉 Economic status of the subjects(continued)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s	frequency	percentage	average
credit card possession	yes	575	67.73	
	no	274	32.27	
	no response	25		
number of cards holding	1	242	48.79	
	2	178	35.89	
	3	59	11.90	
	4	13	2.62	
	5	2	0.40	
	6	2	0.40	
	no response	378		
types of cards holding	cash card	397	57.70	multiple selection
	debit card	260	37.90	
	credit card	161	23.40	
nominal card owner	oneself	629	93.60	
	parent	39	5.80	
	others	4	0.60	
	no response	202		
default experiences	yes	61	10.03	
	no	547	89.97	
	no response	266		
media for acquiring economic knowledge and attitudes	newspaper	321	37.50	multiple selection
	school education	167	19.51	
	Internet	361	42.17	
	home	379	44.28	
	books on economics	22	2.58	
relation of economic knowledge with real life	very closely related	27	3.15	
	moderately related	418	48.77	
	not related	306	35.71	
	not at all related	106	12.37	
	no response	17		

아르바이트의 시간당 급여수준은 2000원대가 51%로 가장 많았다. 장소로는 학생과외지도를 가장 선호하였고 레스토랑이나 패스트푸드점이 23%로 그 다음이었다. 주당 원하는 아르바이트 시간은 시간이 적을수록 많이 원했으며 10시간 미만이 50%다〈Table 3〉.

직장선택의 기준은 높은 임금, 자기발전, 좋은 환경, 시간적 여유, 기타의 순이었다. 기대하는 초봉수준은 임금이 높을수록 많이 응답하였는데 2000만원 이상이 44%이었다〈Table 4〉.

우리나라 경제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는 대상은 국민이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으며 43%, 다음으로 기업 26%, 근로자 25% 등의 순서였다. 경제가 취약한 이유는 국가 경쟁력 약화라 대답한 대상자가 4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실업문제 33%, 가계부채 11%, 국가 상황 10%, 그리고 기술부족 4%의 순 이었다. 경제가 잘된다는 의미는 빈부격차 해소라 대답한 경우가 3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높은 국민소득 31%, 완벽한 복지제도 19%, 완전고용 17%, 선진국 됨 6%의 순서였다〈Table 5〉.

〈Table 3〉 Economic activities of the subjects

(N=874)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s	frequency	percentage	average
part-time job experiences	yes	689	81.83	
	no	153	18.17	
	no response	32		
purposes of having part-time jobs	for allowance	584	77.04	
	for living costs	77	10.05	
	for school expenses	41	5.35	multiple selection
	for entertainment costs	31	4.05	
	others	69	9.02	

〈Table 4〉 Occupational views of the subjects

(N=874)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s	frequency	percentage	average
criteria for choosing jobs	high salary	301	35.41	
	leisure time	108	12.65	
	self development	253	29.63	multiple selection
	good environments	228	26.73	
	others	47	5.52	
starting annual salary	10-13 million won	32	3.80	
	13-15 million won	108	12.84	
	15-18 million won	129	15.34	
	18-20 million won	199	23.66	
	20 million won or more	373	44.35	
	no response	33		

〈Table 5〉 Economic views of the subjects

(N=874)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s	frequency	percentage	average
contributors to economic growth & development	citizens	371	42.94	
	enterprises	226	26.16	
	workers	212	24.54	multiple selection
	government	24	2.78	
	foreign investors	36	4.17	
	others	10	1.16	
economic fragility	unemployment	287	33.14	
	weakened national competitive power	390	45.03	
	insufficient technological development	32	3.70	multiple selection
	household debt	95	10.97	
	national circumstances	90	10.39	
what it means to be good economy	perfect welfare system	168	19.33	
	narrowing the gulf between rich and poor	274	31.53	
	full employment	150	17.26	multiple selection
	status as a developed country	49	5.64	
	high national income	270	31.07	

2. 대상자의 경제의식

대상자들의 경제의식은 <Table 6>와 같다.

대상자의 경제의식은 36.76±10.20으로 약간 높은(중상) 경제의식수준을 나타냈다. 경제의식의 각 영역별 수준은 영역들 중 근면의식이 가장 높았으며, 절약, 협동, 직업, 그리고 소비의 순서로 나타났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경제의식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경제의식의 수준은 <Table 7>, <Table 8>와 같다.

일반적 특성들 중 나이, 동거 가족 수, 학년, 종교, 부모동거 여부, 부직업, 카드명의, 아르바이트 경험, 신용카드 연체경험이 경제의식 수준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는데 이 변수들에서 세부영역별로 살펴보면 나이는 경제의식과 각 영역에서 모두 유의한 순상관 관계를 나타냈다. 학년은 4학년이 1학년에 비해 경제의식정도가 전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동거 가족 수와 경제의식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역상관 관계로 나타났다. 종교가 없는 학생이 종교를 가진 학생에 비해 전 영역에서 경제윤리의식이 높았으나 근면, 절약, 소비영역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 경제윤리의식이 더 높게 나타났으

며 근면, 소비, 협동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아버지의 직업이 농/임/수산/광업인 경우에 근면, 직업, 협동영역에서, 신용카드의 명의가 본인인 경우에 소비를 제외한 전 영역에서, 아르바이트를 해 본 경우에 근면영역에서만, 그리고 신용카드 연체경험이 있는 경우에 전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경제윤리의식이 높았다

4. 대상자의 경제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대상자의 경제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예측변인을 파악하기 위해 경제의식에 유의하게 나온 변인들만을 가지고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학년, 카드명의가 본인인 경우, 연체경험이 있는 대상자에서 경제윤리의식이 유의하게 높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설명력은 8.16%로 나타났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학년으로 1학년에 비해 4학년이 경제윤리의식이 3.92정도 더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카드명의가 본인인 경우로 타인명의에 비해 경제윤리의식이 3.73정도 더 높았고, 마지막으로 연체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에 비해 3.03 더 높았다<Table 9>.

<Table 6> Economic ethics consciousness of the subjects

(N=874)

Item	Mean±SD	Total Mean±SD
industry	2.56 ± 0.92	7.67 ± 2.77
occupation	2.39 ± 0.73	7.18 ± 2.20
thrift	2.47 ± 0.79	7.42 ± 2.37
consumption	2.34 ± 0.63	7.02 ± 1.90
cooperation	2.47 ± 0.74	7.41 ± 2.21
total	2.45 ± 0.68	36.76 ± 10.20

<Table 7> Difference of economic effects consciousnes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industry consciousness	occupation consciousness	thrift consciousness	consumption consciousness	cooperation consciousness	economic consciousness
Age	0.11**	0.12***	0.12***	0.11**	0.14****	0.13***

*P<.05, **P<.01, ***P<.001, ****P<.0001

〈Table 8〉 Differences of economic effects consciousnes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s	industry			occupation			thrift			consumption			cooperation			economic consciousness		
		Mean±SD	t or F*	P	Mean±SD	t or F*	P	Mean±SD	t or F*	P	Mean±SD	t or F*	P	Mean±SD	t or F*	P	Mean±SD	t or F*	P
grade	1	7.31±2.79	-3.49	0.0005	6.81±2.26	-4.55	<0.001	7.08±2.37	-3.89	0.0001	6.76±1.89	-3.72	0.0002	7.06±2.15	-4.26	<0.001	35.12±10.26	-4.32	<0.001
	4	7.97±2.72			7.49±2.09			7.71±2.33			7.24±1.89			7.70±2.22			38.13±9.95		
religion	no	7.99±2.73	2.74	0.0062	7.28±2.04	1.04	0.2978	7.63±2.29	2.08	0.0367	7.22±1.92	2.50	0.0126	7.52±2.13	1.19	0.2329	37.71±9.69	2.14	0.0328
	yes	7.46±2.78			7.12±2.29			7.28±2.41			6.89±1.88			7.34±2.26			36.17±10.48		
major place of growth	Seoul	7.43±2.77	1.29	0.2779	7.02±2.49	1.77	0.1505	7.33±2.63	1.29	0.2752	6.91±2.05	1.59	0.1914	7.18±2.36	1.52	0.2066	35.98±11.12	1.67	0.1722
	metropolitan city	7.76±2.75			7.14±2.11			7.42±2.24			6.98±1.85			7.41±2.08			36.74±9.77		
	small or mid-sized city	7.63±2.79			7.18±2.13			7.38±2.35			7.01±1.87			7.41±2.21			36.69±10.10		
	rural province	8.31±2.59			7.85±2.24			8.06±2.36			7.58±1.97			7.98±2.34			39.79±10.36		
	unshared house	7.41±2.72	1.12	0.3472	7.09±2.23	0.61	0.6582	7.34±2.36	0.44	0.7787	6.88±1.94	0.46	0.7653	7.17±2.13	1.00	0.4087	35.89±10.19	0.94	0.4384
residential forms	apartment houses	7.66±2.74			7.19±2.22			7.38±2.40			7.00±1.91			7.39±2.18			36.73±10.25		
	tenement house/ town	7.71±2.81			7.27±2.32			7.50±2.49			7.10±1.77			7.51±2.25			37.17±10.32		
	house/ multifamily																		
	house																		
	living alone/ lodging	7.67±2.80			7.10±2.05			7.39±2.35			7.05±1.94			7.51±2.43			36.71±10.33		
living with parents	others	8.14±2.83			7.47±2.22			7.70±2.23			7.16±1.82			7.67±2.05			38.34±9.71		
	yes	7.52±2.78	-2.12	0.0347	7.13±2.27	-0.95	0.3480	7.33±2.42	-1.48	0.1403	6.91±1.92	-2.18	0.0283	7.28±2.17	-2.26	0.0243	36.23±10.34	-2.01	0.0449
monthly income	no	7.92±2.74			7.28±2.08			7.57±2.29			7.20±1.87			7.62±2.26			37.66±9.83		
	1million won or less	7.13±2.74	0.49	0.7814	6.91±2.32	0.81	0.5400	7.28±2.31	0.34	0.8875	6.50±2.16	1.32	0.2517	6.96±2.09	0.68	0.6410	34.78±10.61	0.65	0.6633
	1-2 million won or less	7.71±2.84			7.36±2.14			7.55±2.39			7.17±1.90			7.52±2.21			37.39±10.39		
	2-3 million won or less	7.66±2.67			7.21±2.20			7.38±2.33			7.07±1.85			7.45±2.20			36.87±9.86		
	3-4 million won or less	7.78±2.81			6.92±2.06			7.46±2.36			7.08±2.00			7.38±2.19			36.74±10.18		
cash book recording	4-5 million won or less	7.78±2.85			7.34±2.45			7.50±2.38			6.98±2.07			7.20±2.17			36.80±10.85		
	5 million won more	7.42±2.73			7.16±2.41			7.14±2.32			6.68±1.78			7.24±2.28			35.64±10.29		
yes	no	7.75±2.74	0.57	0.5699	7.29±2.22	0.83	0.4087	7.45±2.22	0.24	0.8138	6.84±1.74	-2.23	0.0259	7.39±2.18	-0.14	0.8879	36.77±9.68	-0.08	0.9375
	yes	7.63±2.81			7.16±2.19			7.41±2.47			7.14±2.00			7.49±2.24			36.83±10.59		

〈Table 8〉 Differences of economic effects consciousnes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continued)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s	industry			occupation			thrift			consumption			cooperation			economic consciousness		
		Mean±SD	t or F*	P	Mean±SD	t or F*	P	Mean±SD	t or F*	P	Mean±SD	t or F*	P	Mean±SD	t or F*	P	Mean±SD	t or F*	P
father's occupation	farmer/ lumber man/ fisher/ miner	8.12±2.76	3.77	0.0105	7.48±2.07	2.79	0.0397	7.80±2.46	1.68	0.1689	7.30±2.17	1.46	0.2251	7.67±2.11	2.44	0.0634	38.36±10.44	2.78	0.0404
	self-employed office workers/ public officers	7.52±2.77			7.17±2.27			7.29±2.34			6.95±1.82			7.25±2.13			36.21±10.08		
		7.54±2.77			7.03±2.19			7.33±2.34			6.94±1.90			7.33±2.27			36.29±10.26		
mother's occupation	homemaker/unemployed	9.15±2.63			8.15±2.15			8.00±2.21			7.50±1.82			8.31±2.15			41.12±9.71		
	employed	7.60±2.78	-1.02	0.3069				7.35±2.36	-0.26	0.7978	6.99±1.91	-0.02	0.9830	7.35±2.20	-0.72	0.47	36.48±10.23	-1.06	0.2906
credit card	homemaker/unemployed	8.56±2.60						7.56±1.94			7±1.41			7.89±2.80			40.11±9.91		
	yes	7.70±2.81	0.16	0.8718	7.18±2.17	-0.08	0.9381	7.45±2.36	0.18	0.8539	7.06±1.89	0.35	0.7247	7.47±2.24	1.05	0.2920	36.91±10.20	0.38	0.7074
possession	no	7.67±2.66			7.20±2.24			7.41±2.40			7.00±1.94			7.30±2.18			36.62±10.21		
	oneself	7.77±2.80	2.65	0.0083	7.20±2.18	3.59	0.0004	7.49±2.38	2.82	0.0050	7.06±1.87	1.36	0.1745	7.50±2.19	2.98	0.0030	37.06±10.12	3.04	0.0025
card owner	others	6.60±2.59			5.98±1.78			6.44±2.05			6.65±2.08			6.45±2.20			32.17±9.88		
	monthly	7.97±2.78	1.45	0.2167	7.32±2.22	0.85	0.4946	7.63±2.57	1.12	0.3443	7.11±2.06	1.84	0.1188	7.47±2.20	0.43	0.7880	37.62±10.52	1.13	0.3401
allowance	110,000-200,000 won	7.54±2.71			7.08±2.12			7.35±2.30			7.07±1.90			7.35±2.16			36.42±10.10		
	210,000-300,000 won	7.59±2.84			7.28±2.22			7.42±2.34			6.96±1.87			7.42±2.26			36.74±10.16		
part-time job	310,000-400,000 won	8.22±2.75			7.50±2.37			7.81±2.32			7.23±1.83			7.69±2.22			38.60±10.20		
	410,000 won or more	7.70±2.64	2.14	0.0329	7.00±2.13	1.42	0.1563	6.96±2.08	1.60	0.1090	7.08±1.93	1.59	0.1127	7.45±2.22	1.20	0.2398	35.15±9.40	1.74	0.0821
experiences	yes	7.78±2.79			7.25±2.22			7.49±2.39			6.15±1.59			7.33±2.39			37.12±10.26		
	no	7.25±2.69			6.97±2.08			7.15±2.31			6.81±1.79			7.21±2.18			35.51±10.10		
possession of accounts	yes	7.73±2.78	1.14	0.2539	7.23±2.21	1.32	0.1861	7.47±2.37	1.17	0.2430	7.05±1.91	0.78	0.4369	7.44±2.22	0.73	0.4661	36.96±10.22	1.13	0.2585
	no	7.35±2.71			6.88±2.02			7.14±2.39			6.87±1.80			7.25±2.17			35.58±9.94		
own name saving patterns	deposit: first and then consume the rest	7.60±2.80	0.45	0.6387	7.09±2.14	0.90	0.4083	7.43±2.42	0.00	0.9952	7.10±2.03	0.86	0.4224	7.35±2.23	0.53	0.5892	36.63±10.36	0.15	0.8635
	save and deposit: consume first and deposit: the rest	7.66±2.90			7.20±2.33			7.43±2.68			7.12±1.99			7.35±2.23			36.78±11.16		
experience of cards holding	yes	7.80±2.69			7.33±2.22			7.45±2.15			6.92±1.74			7.51±2.20			37.06±9.61		
	no	8.25±2.70	4.17	.0001	7.61±2.04	4.11	.0001	7.78±1.93	3.68	0.0003	7.02±1.72	2.35	0.0189	8.4±2.33	4.59	.0001	38.69±8.90	4.25	.0001
		6.69±2.73			6.46±2.03			6.63±2.32			6.45±1.77			6.64±2.14			32.92±9.96		

* grade and religion of the subjects, and the record of their cash books are analyzed by 2-sample t-test.

〈Table 9〉 Effects of general characteristics on the economic ethical consciousness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t	p-value
religion	yes	-1.10568	0.96828	-1.14	0.2541
	no				
occupation	farmer/ lumber man / fisher/ miner	-0.58708	3.18605	-0.18	0.8539
	office workers/ public officers	-1.37210	2.91540	-0.47	0.6381
	self-employed	-2.71608	2.93709	-0.92	0.3556
	unemployed				
grade	4	3.91506	0.99085	3.95	.0001
	1				
living with par- ents	yes	-0.88368	0.98164	-0.90	0.3685
	no				
nominal card owner	oneself	3.72727	1.72047	2.17	0.0308
	others				
default experiences	yes	3.03025	1.47241	2.06	0.0402
	no				

R-Sq: 0.0816, Adj R-Sq: 0.0646

V. 논 의

본 연구에서 간호학생들은 중상정도의 경제윤리의식 수준을 나타냈다. 영역별로는 가장 높은 것이 근면의식이며, 절약, 협동, 직업, 소비의 순서였다. 부산의 대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한 Lee et al.(1996)의 연구에서도 근면, 절약, 협동, 소비, 직업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와는 직업과 소비에서 순서의 차이를 보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간호학생은 일찍부터 간호사라는 직업관을 가지고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Kim(1995)의 연구에서는 창조, 근면, 절약, 직업, 협동의 순으로 나타났다. 앞의 두 연구와 비교 할 수 있는 4영역 내에서 살펴 볼 때 세 연구 모두에서 근면의식이 가장 높게 나타나 경제의식 중 근면의식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Lee et al.(1996)이 근면의식이 높은 것은 지역적 특성이라 설명한 것은 설득력이 약하며 우리나라 학생들의 근면의식

이 높음을 나타낸다. 또한 Kim(1995)의 연구에서 협동의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것을 Lee et al.(1996)은 고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할 경우 대학에서의 생활을 통해 협동의식이 나아진다고 설명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높게 나타난 협동의식은 간호학생의 경우 간호의 기본개념이 남을 돕는 일이며 봉사와 협력의 환경에 있기 때문이라 생각되므로 이점에서도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경제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해 정리해 보면 Park(1992)의 연구에서 경제의식은 나이와 학년에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으나 주거형태는 유의하지 않았다. Lee et al.(1996)의 연구에서는 영역별에서 성별, 성장지역, 종교, 생활수준, 보호자의 직업이 경제의식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고, 본 연구에서는 결과에서 살펴보았듯이 나이, 동거 가족수, 학년, 종교, 부모동거 여부, 부직업, 카드명의, 아르바이트 경험, 신용카드 연체경험이 경제의식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

다. 4학년은 1학년에 비해 전 영역에서 경제윤리의식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였는데 이렇게 학년이 높아지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경제의식이 높아지는 것은 나이와 같은 이유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삶의 경험과 사회에 대한 민감도가 높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종교가 없는 경우가 윤리의식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Lee et al.(1996)의 연구에서와 같은 결과이나 Park(1992)의 연구와는 상반된 것으로 Park(1992)의 연구에서는 종교는 경제의식을 높이는 중요한 변수로 증명되었다. Lee et al.(1996)이 경제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재분석한 결과에서도 종교가 가장 경제의식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나왔으나 단순히 종교를 갖는 여부만으로는 생활수준, 보호자 직업 보다 낮게 나타난다고 하였으므로 상반된 결과에 대한 해석으로 타당하게 생각된다. 그리고 종교 외에 다른 요소들은 생활수준, 보호자 직업, 성장지역 순이며 성별이 가장 연관성이 적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부모와 동거여부와 관련해서는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서 경제의식이 높았는데 근면, 소비, 협동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부의 직업이 없는 경우에 전 영역에서 경제의식이 높게 나타났으며 근면, 직업, 협동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가정경제환경이 학생들로 하여금 경제의식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동거가족수가 적을수록 경제윤리의식이 높은 것과도 같은 이유라 생각된다.

카드 명의가 본인인 경우와 신용카드의 연체 경험이 있는 경우에 경제의식이 전 영역에서 높게 나타났고, 카드명의가 본인인 경우 소비영역만을 제외하고 전 영역에서 매우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들의 경제경험들이 경제의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에 근면영역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경제의식이 높았는데 이는 근면함과 일이 관련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대상자들의 경제생활의 항목들(경험들)은 경제의식을 높이는데 실제적이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므로 모의 상황을 만들어 경제지식을 가르치고 체험하게 하므로 경제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빠르게 형성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한 방법이다.

경제생활 및 경제관과 관련해서 Choi(2002)의 연구에서는 직장선택의 이유 중 가장 중요한 항목이 시간적 여유인데, 본 연구에서는 높은 임금, 자기발전, 좋은 환경, 시간적 여유, 기타의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직장은 중·고등학생보다 대학생에게 보다 현실적이고 당면한 문제이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대부분의 학

생 82%가 아르바이트를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아르바이트 장소로 학생과외지도를 가장 선호하였고 레스토랑이나 패스트푸드점이 23%로 그 다음이었다. 중고생의 경우에는 레스토랑이나 패스트푸드점이 1위였고, 미국의 경우 소매점 21.9%, 아이돌보기 17.7%, 레스토랑과 패스트푸드점 16.3%의 순이다. 학생과외지도가 가장 높은 것은 우리나라의 특수성에 기인된 것으로 생각되며 원하는 아르바이트 시간도 10시간 이내가 가장 많은데 이는 학생과외지도와 관련된 이유라 생각된다.

경제의식의 습득은 주로 가정에서 이루어진다고 응답했으나 중·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언론매체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이 결과는 다소 모순되게 생각되며 가정환경이 실제 학습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예측되나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어려우며 잘못 해석하기 쉬우므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학교교육에 응답률이 낮은 것은 학교교육의 현주소를 시사하는 바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는 대상은 국민이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는데, 이것은 Choi(2003)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국가와 기업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적음을 나타낸다. 최근 사회전반에 만연하고 있는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고 정책 입안과 실행의 전 과정에서 국가와 기업을 신뢰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경제생활에서 중고생의 경우 금전관리를 기록하지 않는 경우가 71%인데 본 연구에서는 38%로 훨씬 적은 상태이다. 이러한 결과도 고등학생들보다 실생활과 관련된 경제활동이 늘어난 것을 나타낸다.

또한 경제윤리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Lee et al.(1996)의 논문에서는 종교, 생활수준, 보호자 직업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학년이 높고, 카드명의가 본인이고, 연체경험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경제의식의 전 영역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낸 문항은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2.19)이다. 이는 학생들의 직업관이 전통적 직업관에 기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점수가 낮은 것은 충동구매와 관련된 문항으로 잠재적 소비와 이와 관련된 신용문제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반면,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 문항은 '소득이 늘어 잘 살게 되어도 근면성은 필요하다'(2.65), '근면의식은 나 이외의 사람을 위해서 필요하다'(2.62), '절약은 나 이외의 사람을 위해서 필요하다'(2.61)이다. 이는 문헌고찰에서 한국병 현상 중 근로정신의 헤이 현상에 반하는 것으로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에게 이러한 경제의식은 다행스런 결과라 생각된다.

최근 서울의 일대학교에서 실시한 금융특강들의 수강신청

이 1, 2분만에 마감되었다는 보도는 대학생들의 경제지식에 대한 필요와 욕구를 반영하는 것이다(MNP August 20, 2003). 또한 본 연구의 결과로 실제 생활경험이 경제의식에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경제윤리의식의 수준을 높이고 건전한 경제의식을 갖도록 소비교육과 신용교육 및 일상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금융지식을 중심으로 한 실용성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용이 필요하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전국의 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들의 경제덕목 내지는 경제윤리에 초점을 둔 경제의식을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다. 연구의 대상은 전국의 대학교 간호학과 1, 4학년의 학생이며 총 874명이다. 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해 2003년 6월 5일부터 6월 20일까지 16일 동안 자료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AS 통계 package을 이용하여 서술적 통계와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2-sample t-test, ANOVA,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경제의식수준은 총평균점 36.76±10.20이며, 각 영역별 평균은 근면의식 7.67±2.77, 절약의식 7.42±2.37, 협동 의식 7.41±2.21, 직업의식 7.18±2.20, 소비의식 7.02±1.90로 근면의식이 가장 높았고, 소비의식 수준이 가장 낮았다.

2.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경제의식수준에서 나이와 경제의식수준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순상관 관계이다($r = .13, p < .001$). 다음으로 학년이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4학년이 1학년에 비해 경제의식의 전 영역에서 매우 높게 나타났다($t = -4.32, p < .001$). 또한 동거 가족수는 경제윤리의식과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며 역상관 관계에 있었다($r = -.15, p < .001$). 그리고 종교가 없는 경우($t = 2.14, p < .05$), 부의 직업이 없는 경우($t = 2.78, p < .05$), 카드명이가 본인인 경우($t = 3.04, p < .005$), 신용카드의 연체경험이 있는 경우($t = 4.25, p < .001$),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경우($t = 1.74, p < .1$) 마지막으로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 경제윤리의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 = -2.01, p < .05$).

3. 경제윤리의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는데 4학년이 1학년에 비해, 카드명이가 본인인 경우가 타인인 경우

에 비해, 연체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에 비해 경제윤리의식정도를 평균 3.0정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간호학생들의 일반적인 경제의식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경영에 미치는 효과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경제의식을 구성하는 영역도 경제학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었는데 이들 차이에 대한 간호학적 탐구가 부족하였다.

그러므로 간호경제학적 관점에서 경제의식의 영역을 재구성하고, 도구를 간호경영과 관련된 간호행위의 구체적 상황들로 수정하여 전문가 타당도를 거쳐 이를 사용하여 연구를 한다면 간호경영과의 실제적인 관련성과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리고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학생들의 실생활에서의 경험이 경제의식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강의식 교육보다는 체험을 통한 경제교육 개발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Caroselli, C. (1996). Economic awareness of nurses: relationship to budgetary control. *Nursing Economics, 14*(5), 292-298.
- Choi, H. S. (2003). A Study on the economic attitudes of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Samsung Economic Research Institute issue-paper*. 1-32.
- Hicks, L., Stallmeyer, J. M. & Coleman, J. R. (1992). Nursing challenges in managed care. *Nursing Economics, 10*(4), 265-276.
- Kim, G. S. (1995). Effects of the absence of spiritual education on the economic ethical consciousness. *Economic Educational Research 1*(1), 5-37.
- Kim, G. S. (1998). Reforms of economic consciousness through considerations of the correlation between capitalism and the principles of market economy. *Economic Educational Research 4*(1), 59-82.
- Lee, D. S., Bae, J. Y., & Lee, H. J. (1996). An empirical study on the economic ethics and consciousness in college students - based on the Students in Busan. *Economic Educational Research, 2*(1), 223-247.
- Lee, H. W. (1988). Six variables affecting the correlation be-

tween moral reasoning and moral judge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Busan university of Korea, Busan.

Lee, T. W. (2003). Economic awareness, economic knowledge, and attitude toward cost-effectiveness in nursing of hospital nurses. *J Kor Aca of Nur Adm*, 9(1), 103-112.

Park, D. S. (1992).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economic attitudes of middle-Class Koreans. Thesis collec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institute of social sciences*. 3, 243-283.

Sandella, D. L. (1990). Cost versus quality: In the balance. *Nursing Administration Quarterly*, 14(3), 31-40.

Weiseke, A. & Bantz, D. (1992). Economic awareness of registered nurses employed in hospitals. *Nursing Economics*, 10(6), 406-412.

Yoo, D. K. (1996). A study on quality perceptions and satisfaction for medical service marketing. *J Kor Aca of Nur Adm*, 2(1), 97-114.

'Students flocked in the special lecture on finance at Hanyang university'(2003, August 20), *Maeil Business Newspaper*, p.1

'Number of defaulters exceeds 3.50 million'(2003, September 27), *Maeil Business Newspaper*, p.2

'Economic education is learned at the age of three remains till you die.'(2003, November 20), *Maeil Business Newspaper*, p.7

-Abstract-

Key words : Nursing Students, Consciousness of Economic Ethics

A Study on the Consciousness of Economic Ethics in Nursing Students

Hong, Yoon Mi*

Purpose : The present study attempted to consider the

degree of consciousness of economic ethics in nursing students and the factors affecting these perceptions.

Method : A survey was conducted to a total of 874 nursing students from the freshmen and seniors of 11 depts of nursing science nationwide selected by convenience sampling (one for each province, and as for Gangwon-do, two schools were selected from Yeongdong area and Yeongseo area ; 13 male students were excluded). A structured questionnaire was used to collect data on their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economic ethical perceptions.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AS V8.1 statistical package.

Result : (1) The score for the economic ethical consciousness of the subjects was 36.76±10.20. As for each sub-categories, the score for industry was 7.67±2.77; thrift, 7.42±2.37; cooperation, 7.41±2.21; occupational consciousness, 7.18±2.20; and, for consumption, 7.02±1.90. The score for the consciousness of consumption was the lowest. (2) Among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age was found to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 to the consciousness of economic ethics($r=.13$, $p<.001$). The next significant factor was grade: seniors seemed to have a higher economic consciousness in all the sub-categories than freshmen($t=-4.32$, $p<.001$). The number of in-home family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with economic attitudes($r=-.15$, $p<.001$). In addition, their economic ethical perceptions were significantly higher with no religion ($t=2.14$, $p<.05$); have an unemployed father ($t=2.78$, $p<.05$); have credit cards under their own names ($t=3.04$, $p<.05$); have ever had overdue card bills ($t=4.25$, $p<.001$); have ever had part time job($t=1.74$, $p<.1$) and when they don't live with their parents ($t=-2.01$, $p<.05$). (3)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influential power of the factors affecting the consciousness of economic ethics of the subjects. The factors had more influence on the economic attitudes of the seniors than those of freshmen; in those who having credit cards under their own names than under others; and, in those who have ever experienced credit default than those haven't. Though these factors raised average 3.0 points of economic consciousness, their expository power for the consciousness were low.

*Department of Nursing Kwandong University

Conclusion : The nursing students had medium-high consciousness of economic ethics and they seemed to have low consciousness of the proper consumption practices. Their actual life experiences had an influence on their economic attitudes. Therefore, practical programs on economic knowledge should be developed and taught to students systematically at school so that they could have sound consciousness of economic ethics and appropriate knowledge closely related with their real life.